

2025년,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%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
베이비부머 세대 700만 명, 2028년까지 노년기 진입

초고령사회를 대비해  
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

#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

2023-2027



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 
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 강화

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 
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

한국형 '유니트 케어' 개발, 평가·갱신 등  
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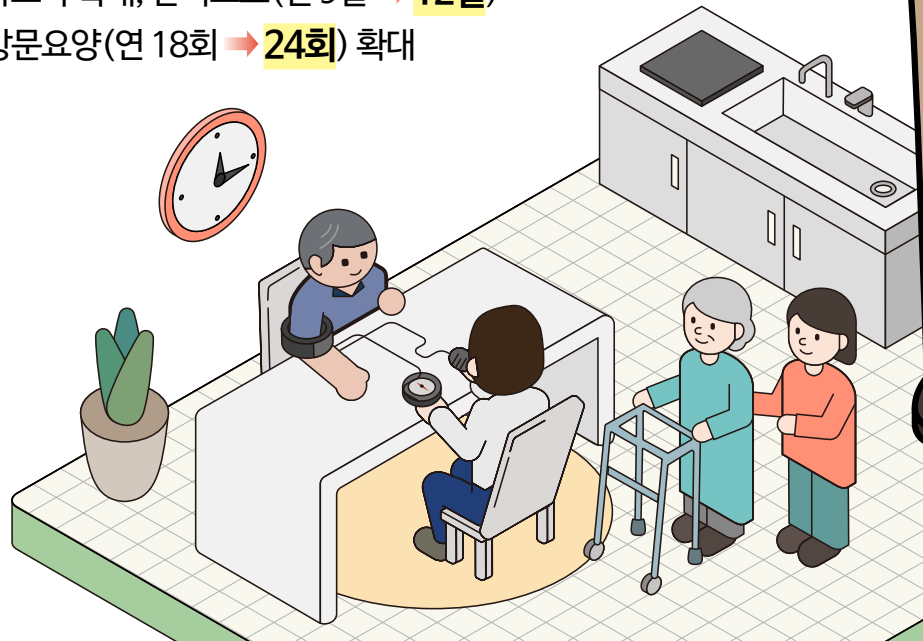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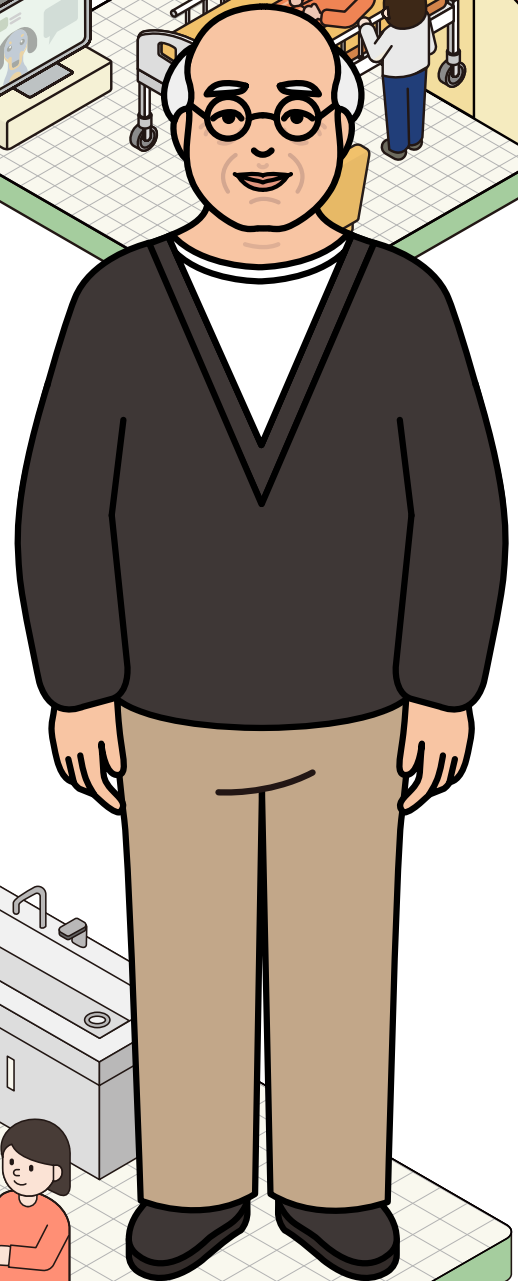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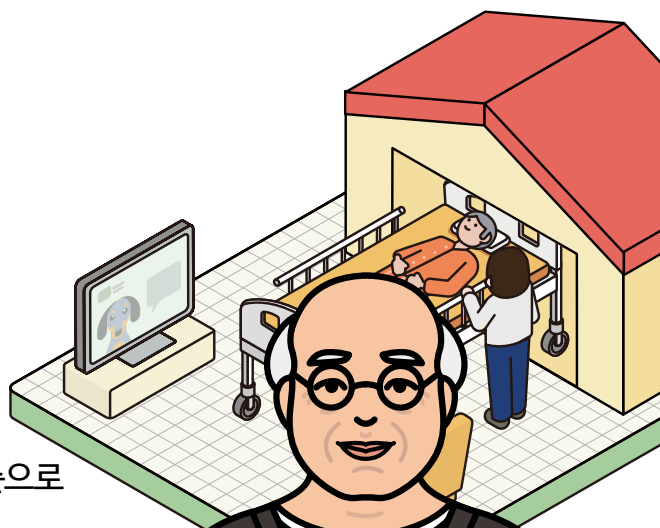
#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2023-2027) 발표

## “앞으로는”

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 
장기요양서비스 강화



- 장기요양 1·2등급인 어르신이 집에서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 추진
- 집에서 상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,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**통합재가서비스 확대**
-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방문 진료·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**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전국 확대, 방문간호 활성화**
-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**치매가족휴가제 단계적 확대** 등  
-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족뿐만 아니라 1·2등급 중증수급자가족도 포함하도록 확대, 단기보호(연 9일 → **12일**)·  
종일방문요양(연 18회 → **24회**) 확대



#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2023-2027) 발표

## “앞으로는”

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 
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



- 장기요양대상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-지방자치단체-장기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
- 신체·인지 기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
- 베이비부머 신노년층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



#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2023-2027) 발표

## “앞으로는”

### 한국형 ‘유니트케어’ 개발, 평가·갱신 등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



-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
- 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‘유니트케어\* 모델’ 개발 추진  
\* 1,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및 개별 서비스를 강화한 요양시설
-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강화 및 부실운영기관 관리기반 마련
  - 운영 역량 미흡한 대표자의 기관 설치 제한
  - 6년간의 기관 평가, 행정처분 내용, 시설·인력 기준 평가 결과, 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한 갱신기준 마련
- 품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
  -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 축소 (2023년) 2.3:1 → (2025년) **2.1:1**
  -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한 승급제 시범사업,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등
  - 정기 보수교육 의무, 양성 교육시간 확대

